

글로벌 게이트웨이 논의와 한반도 서비스산업 비전 및 전략*

Vision and Strategy for Service Industry on the Korean Peninsula : Discussion on the Global
Gateway for Service Cooperation

박문서(Moon-Suh Park)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및 제언 |
| II. 서비스 비전의 배경 및 당위성 | 참고문헌 |
| III. 남북한 경험 현황과 과제 | Abstract |
| IV. 한반도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 |

Abstract

The Korean Peninsula has the gateway role of Far East Asia in economic aspect, because it is the channel to global world that Korea and Japan should take in the future. Till now, there was no real economic cooperation in service industry for two Koreas. Nevertheless, it is high time that two Koreas have to play a gateway role in order to pave the way to come true their global vis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in service sector and explore the vision and strategy which are useful for the ways toward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wo Koreas' future survival in the midst of global competition.

Economic cooperation in service sector, such as transport, tourism, educational services, etc. between two Koreas means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the infrastructure of their unification. If there were no cooperation of service sector on the Korean Peninsula, we also could not expect the outcome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vision of Korea's unification. To sum up, the strategy recommended for the Korean Peninsula's global vision is that two Koreas should simultaneously open the window of economic cooperation in service sector and link the interface between the Eurasian continent and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 Services, Service Industry, Service Export, Trade in Services, Service Cooperation, Korean Peninsula

* 이 논문은 2007년도 호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사)한국통상정보학회가 주관한 "2007 FTA 남북경협 정책포럼 및 국제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논문의 개선을 위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토론자와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립니다.

I. 서론

수출 3,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도 한국에는 여전히 무역문제와 관련한 미해결의 과제가 남아 있다. 즉, 한반도와 주변국 내지 세계 평화를 위협하면서 하시라도 한국무역을 통제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리스크가 한반도에 남아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항구적이고도 효과적인 평화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값비싼 무역비용을 치루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는 창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세기에 들어선 지 수년이 지났건만 한반도 문제는 아직도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하다.

한반도에 잠재하고 있는 경제외적 문제를 풀어 나갈 ‘새로운 돌파구는 무엇이며, 이를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는 무역인의 고민이자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숙제이기도 하다. 한반도에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원인의 한 가지는 결국 북한의 경제문제이며, 그 중심에는 심각한 물자부족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이념대립에서 파생되는 갈등은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물질적 풍요와 빈곤의 차이는 한반도에 남아 있다.

남북한 경제 격차는 한반도에서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물질적 풍요와 빈곤의 차이는 남북한 모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현재진행형의 미해결 과제로 계속 남겨둘 수는 없다. 한반도 긴장 해소의 한 방법을 비물질적 측면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 그 해답은 바로 서비스 부문이라고 판단된다.

2006년 12월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준비해 오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쟁심화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의 한계와 더불어 출산을 저하, 고령화 문제의 대두,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최근 상황이 경제의 근본에 고민을 가중시킴에 따라 이의 해소 방안으로 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국내 산업용으로 준비된 전략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즉, 서비스상품의 글로벌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며,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남북한의 경제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06년부터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 서비스 부문의 발전전략에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여간 어려운 협상과정일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이 테이블은 무엇보다 서비스 부문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한국 정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더 이상의 정책실패와 근원적 오류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인 서비스 중심의 경제 사고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경제 관점에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태생적 한계와 북한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경제협력방안과 발전전략을 동시에 검토해 봄으로써 무한경쟁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반도 비전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의 둔다. 연구결과는 서비스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와 그 적용을 도움으로써 국가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연구의 진행은 문헌연구의 방법에 의존하며,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학술 및 시사 자료를 분석하고 현실적 판단에 근거한 대안을 모색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 경제문제를 가능한 한 남측과 북측의 개별적 시각이 아닌 한반도의 시각에서 접근하였으며, 용어사용에 대한 정의적 서술과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핵문제 위험 등 비경제적 논의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¹⁾

II. 서비스 비전의 배경 및 당위성

1. 남북한 서비스 협력의 배경

1) 한국 경제문제의 보완

자원의 한계와 시장의 한계에 동시 직면해 있는 한국은 글로벌 발전 전략을 통하여 경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유지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음을 알고 있다.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가시화되고 있고, 시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경향 역시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의 소중한 투입요소인 자원을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으로 구분할 때 북한은 석유 및 천연가스 에너지를 제외한 자원들을 일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정한 관광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남북한 서비스 부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을 인건비, 기술력, 지식수준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노동력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1/10 수준(개성공단 기준)이므로 역시 고임금국으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북한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제약조건을 일부 보완해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협력의 전제는 우선 남북한 협력 부문이 상호 보완성이 있는가의 여부와 남북한 상호간 이익이 되느냐의 여부, 그리고 미래 발전 비전이 있는가의 여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통일을 목적으로 한 교류를 우선시하는 것은 이념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북한은 곧 통일의 대상’이라는 등식을 버려야 하며,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에서 접근하여 서비스 부문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이 논문에서 한국과 남한, 북한, 한반도, 남측 및 북측 등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정치·이념적으로 숨은 의도가 없음을 밝혀 두며, 편의를 위하여 혼용하기로 한다. 또한 ‘사업’과 ‘투자’, 그리고 ‘경제협력’의 용어에 대한 구분 역시 연구목적과 관련된 의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 등의 논의를 배제한다. 또한 서비스 비전 또는 서비스 협력 등으로 축약 사용하는 용어는 서비스산업 내지 서비스무역 등 서비스 부문의 비전 또는 협력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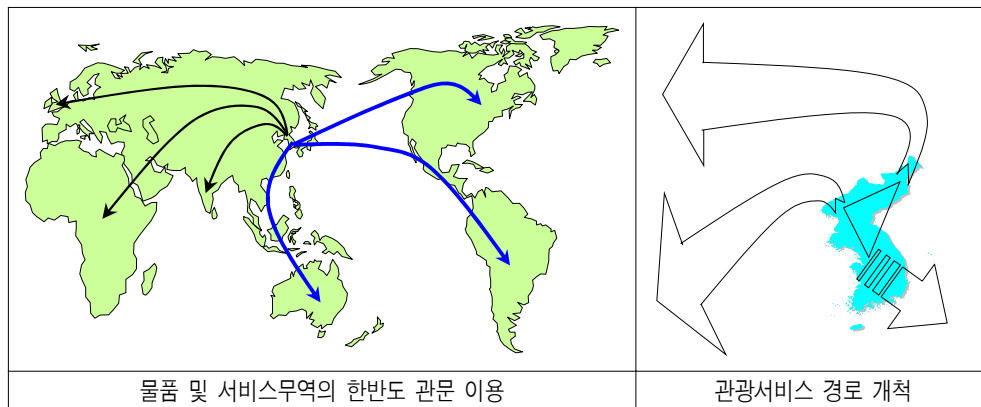
현실적 경제문제에서 한국은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이다. 무역의존도 역시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역풍에 민감해 하며, 원화 절상으로 수출둔화에 직면하고 있다. WTO 다자간 협상의 한 고비를 넘기는가 싶더니 한미 FTA 협상으로 다시 난관에 직면하는 등 한국의 경제적 고민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한국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유망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개발 프로젝트 시동을 걸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성장동력 발굴 분야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륙으로 연결되는 길목을 개방하는 것은 상품과 자원의 이동통로를 제공하게 되어 자원조달비용과 수출상품의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북한에서 창출되는 서비스상품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돕는 결과가 된다.

2) 지정학적 여건과 서비스산업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북한을 통과하는 교통로의 폐쇄로 인하여 지구촌의 북서쪽을 개척하지 못한 셈이다. 실크로드를 이용한 동서양의 문물교류가 왕성하였던 과거 역사가 말해주듯이 육로는 물류흐름의 우선적 대안이다. 서비스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경로를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서비스가 무형의 재화라 하여 유통경로가 불필요하다는 전제는 경제현상을 관찰하는 데에 있어서 자칫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림 1] 한반도 글로벌화와 지정학적 경로



한반도를 지구의 중심에 두고 보면 동남쪽으로 향하는 해상·항공로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지만 북서쪽으로 향하는 육로는 상대적으로 개발 또는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동남향의 해상·항공로가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반석에 올린 물품무역의 유통경로로서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북서향의 육로

는 미래의 한반도 드림을 실천하는 서비스 실크로드, 즉 중진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수출 경로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서비스무역 경로가 정착되면 자원개발 경로 또는 물품무역 경로 역시 자연발생적으로 확립될 것이다.

3) 경험 시차극복의 대안

분단의 장벽이 한반도에 설치된 이후 60여년 넘게 지난 현재를 돌아보면 많은 면에서 비슷하지만 역시 많은 면에서 색다른 두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념적 대립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동일한 피부와 언어, 그리고 동일한 역사를 가졌던 한민족의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달라진 상황으로 변모해 있는 것이다. 양측의 문화가 바뀌었고, 경제 갭이 큰 폭의 차이(<표 1> 참조)를 보이며, 이념적 차이 역시 여전히 남아 있는 등 이른바 ‘한반도 격차’(Korean divide)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오늘날 남북한의 엄연한 모습이다. 문화, 경제력, 기술수준, 이념적 차이 등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는 한 마디로 ‘서비스’의 격차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반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한반도 격차가 누적된 기간이 반세기가 넘는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디지털 기술발전과 라이프 사이클 단축으로 인하여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1> 주요 지표를 통한 남북한 경제력 비교(2004년 기준)

| 구 분 | 단 위 | 한국(A) | 북한(B) | 배율(A/B) |
|-----------|------|---------|--------|---------|
| 인 구 | 천명 | 48,082 | 22,709 | 2.1 |
| 명목 GNI | 억달러 | 6,810 | 208 | 32.8 |
| 1인당 GNI | 달러 | 14,162 | 914 | 15.5 |
| 무역총액 | 억달러 | 4,783.0 | 28.6 | 167.2 |
| 수출 | “ | 2,538.4 | 10.2 | 248.9 |
| 수입 | “ | 2,244.6 | 18.4 | 122.0 |
| 무역액/명목GNI | % | 70.2 | 13.8 | 5.1 |
| 경제성장률 | % | 4.6 | 2.2 | 2.1 |
| 발전량 | 억kWh | 3,421 | 206 | 16.6 |
| 원유도입량 | 만배럴 | 82,579 | 390 | 211.7 |
| 쌀생산량 | 만톤 | 500.0 | 180.0 | 2.8 |
| 자동차생산 | 만대 | 346.9 | 0.5 | 770.9 |
| 철도총연장 | km | 3,380 | 5,235 | 0.6 |
| 도로총연장 | km | 100,278 | 25,185 | 4.0 |
| 항만하역능력 | 만톤 | 53,278 | 3,690 | 14.4 |
| 선박보유 | 만톤 | 884 | 90 | 9.9 |

자료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에서 발췌

4) 글로벌 스탠더드 격차 해소

한국은 개발 초기단계부터 개방형 전략을 지향해 왔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화의 경험이 매우 풍부한 편이다. 한국은 GATT 체제, 우루과이라운드, WTO 출범 등 다양한 글로벌 시스템 하에서 혹독한 통상 마찰의 경험과 개방 압력을 겪는 동안 비교적 능동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개방전략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후의 격심한 글로벌화 과정에 직면하게 될 경우 새로운 갈등이 파생되고 그 책임과 보상을 남북한 경험 문제로 전가시킬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에 잠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한반도 서비스 비전의 당위성

한국이 지금까지 이룩해 온 경제발전 모델을 제1단계 전략으로 본다면 이를 북한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경제협력 등 국가간 역학적 구도를 감안할 때 남북경협 모델을 서비스 부문의 협력 모델로 구상하고 이를 한반도의 제2단계 경제발전 전략으로 구체화시켜 미래비전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당위성과 이유를 개략적으로 검토·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을 내다보는 남북경협이 이루어지더라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이 협소한 상태로 남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물적 자원외의 의존도를 높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서비스 자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해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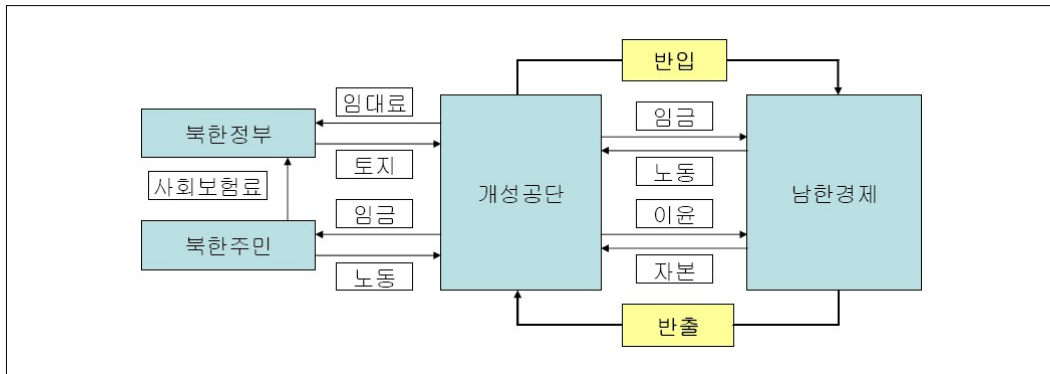
둘째, 남북경협으로 한국의 고임금 상황이 개선되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이 경제현장에 투입되면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하락이 촉발되고, 적어도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경쟁력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금하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실질소득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 부문은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다. 미래는 물적 자원보다 문화, 기술, 정보, 지식 등 서비스 자원외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임에 틀림없다. 서비스 자원을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상품은 무한하며 자기복제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파생상품까지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원빈국인 남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미래의 발전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여지가 많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디지털 시대가 진전될수록, 글로벌화가 확대될수록 부문간 장벽이 붕괴되고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새로운 전략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게 된다. 한반도 업그레이드 전략 역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게 됨은 자명하다.

다섯째, 한국이 추진해 온 제조·수출 중심의 발전모델에 변형을 유도할 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산업발전 단계는 물론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로 서비스 부문을 활용하여 제조·수출 발전전략을 보완 내지 병행 추진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림 2] 개성공단의 생산과 소득의 흐름



자료 : 이영훈, “남북경협 현황 및 평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2006. 12, p. 28.

[그림 2]는 개성공단의 생산과 소득 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가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임금과 지대, 이윤을 발생시키고 서비스상품을 생산·유통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시킨다. 개성공단 투자는 승수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한반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서비스 부문은 투자의 회임기간이 짧다는 특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상품판매에 돌입할 수 있다. 가령 중국 및 러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골프 등 스포츠 이벤트를 활성화시키고 카지노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협력 초기단계부터 판매함으로써 한반도 서비스 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한반도 서비스 비전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남북한 경협 현황과 과제

1. 남북한 경협 현황

1) 경협규모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이며 한반도 안정을 견인하고 있다. 그 동안 남북경협은 초기 민간

차원의 교역 및 임가공을 거쳐 2000년 이후 3대 경협사업(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금강산관광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남북경협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정치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으며,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할 수 있어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직접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림어업 비중이 26.7%로 한국의 3.8%에 비해 매우 높으며, 광공업,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의 비중은 한국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32.3%로 한국의 55.6%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표 2> 참조). 이는 북한의 산업구조가 아직 고도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경상 GDP 기준으로 볼 때 56.3%, 고용기준으로 볼 때 65.2%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북한 경제협력 규모를 읽을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05년말 현재 남북한 교역규모는 10억5,50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방북인원 87,000여명과 방남인원 1,300여명 등 전체 88,341명의 인적왕래가 이루어졌다. 이는 2005년 이전 60년간 남북한 왕래인원인 85,400명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금강산관광객은 2004년부터 급증하여 2005년말 현재 약 30만명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1998년 관광 시작 이후의 누적 관광객 수는 총 1,155,244명이다.

<표 2>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2004)

| | 한국(%) | 북한(%) |
|---------|--------|--------|
| 농림어업 | 3.8 | 26.7 |
| 광공업 | 28.9 | 27.2 |
| (광업) | (0.3) | (8.7) |
| (제조업) | (28.6) | (18.5) |
| (경공업) | (5.2) | (6.7) |
| (중화학공업) | (23.4) | (11.8) |
| 전기가스수도 | 2.4 | 4.4 |
| 건설업 | 9.3 | 9.3 |
| 서비스 | 55.6 | 32.3 |
| (정부) | (6.1) | (22.6) |
| (기타) | (49.5) | (9.7) |
| 국내총생산 | 100.0 | 100.0 |

주 1) 한국은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북한은 공공행정 및 국방 이외에 교육, 의료보건서비스도 포함
 자료 : 통계청, KOSIS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표 3〉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

(단위 : %)

| 구분 |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
| 경상GDP 기준 | 서비스산업 | 44.7 | 43.6 | 47.3 | 47.4 | 49.5 | 51.8 | 54.4 | 56.3 |
| | 제조업 | 17.8 | 21.6 | 24.4 | 27.3 | 27.3 | 27.6 | 29.4 | 28.4 |
| | 기타산업 ¹⁾ | 37.5 | 34.8 | 28.3 | 25.3 | 23.2 | 20.6 | 16.2 | 15.3 |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고용기준 | 서비스산업 | 34.3 | 32.4 | 38.6 | 45.6 | 47.7 | 54.8 | 61.2 | 65.2 |
| | 제조업 | 14.2 | 19.9 | 22.7 | 24.3 | 27.9 | 23.6 | 20.3 | 18.5 |
| | 기타산업 ¹⁾ | 51.5 | 47.8 | 38.7 | 30.1 | 24.4 | 21.6 | 18.5 | 16.3 |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1) 농림수산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및 건설업
 자료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에서 발췌

〈표 4〉 참여정부 이후 대북한 경제협력 규모

| 구분 | 연도 | 2003 | 2004 | 2005 | 2006.8 |
|-------------------|-----|--------|---------|---------|---------|
| 남북교역규모 (백만USD) | 반입 | 289 | 258 | 340 | 318 |
| | 반출 | 435 | 439 | 715 | 457 |
| | 계 | 724 | 697 | 1,055 | 775 |
| 인적왕래규모 (명) | 방북 | 15,280 | 26,213 | 87,028 | 67,736 |
| | 방남 | 1,023 | 321 | 1,313 | 835 |
| | 계 | 16,303 | 26,534 | 88,341 | 68,571 |
| 금강산관광객 (명) | 관광객 | 74,334 | 268,420 | 298,247 | 174,482 |

자료 :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 자료

2) 사회문화교류 협력 현황

남북한 사이에서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접촉 확대를 통하여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회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방북한 인원은 10,227명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사회문화교류 분야는 방송문화분야와 체육종교분야,

민족사문제해결협력 등이며, 전반적으로 볼 때 남북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85년 이후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사회문화교류 협력의 주요 활동들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5>의 내용과 같다.

<표 5> 남북한 사회문화교류협력 주요 내용

| 연도 | 주요 내용 |
|------|---|
| 1985 | ○ 고향방문시 예술단 교환 공연 |
| 1990 | ○ 범민족통일음악회(남측) 평양공연(10.18-10.23) ○ 평양민족음악단(북측) 서울 공연(12.8-12.13) |
| 1997 | ○ 북한문화유적답사(12월-'98.3월까지) |
| 1998 | ○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공연(5.2-12) ○ 「윤이상 음악회」 참가(10.30-11.7) |
| 1999 | ○ 「평양친선음악회」 개최(12.2-8) ○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12.18-25) |
| 2000 | ○ 평양학생소녀예술단(102명), 공연 (5.24-5.30, 서울) ○ 평양교예단 공연(5.19-6.11, 서울) ○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8.18-8.24, 서울) ○ 조총련 「금강산가극단」 공연(12.15-12.17, 서울) |
| 2001 | ○ 「춘향전」 남북합동공연(2.1-2.2, 평양) ○ 「5.1 남북공동행사」 금강산 개최(4.30-5.2) ○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금강산 개최(6.14-15) ○ 「남북농민통일대회」 금강산 개최(7.17-19) ○ 「8.15 남북공동행사」 평양 개최(8.15-21) |
| 2002 | ○ 「6.15공동선언 2주년 기념 통일대축전」 금강산 개최(6.14-15) ○ 「8.15 민족통일대회」 서울 개최(8.14-17) ○ 남북교향악단 합동공연(9.16-9.22, 평양) ○ 이미지·윤도현 특별공연(9.25-9.30, 평양) ○ 「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 금강산 개최(10.13-14)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 금강산 개최(10.16-17) ○ 「금강산가극단」 공연(11.30-12.10, 부산, 전주) |
| 2003 | ○ 「3.1민족대회」 개최(3.1-3.3, 서울) ○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8.14-8.17, 평양) ○ 개천절 공동행사 개최(9.30-10.4, 평양) ○ KBS 전국노래자랑 평양편(8.5-8.12, 평양) ○ KBS [경험현장을가다] 제작(9.20-10.4, 개성) ○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개최(10.23-10.27, 제주도) |

| | |
|-------------|---|
| <p>200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절 노동자대회 개최(4.30-5.3, 평양) ○ KBS 다큐멘터리 ‘고구려는 살아있다’ 제작(6.7-6.19, 평양) ○ 6.15 우리민족대회 개최(6.14-6.17, 인천) ○ 『꽃으로 본 내나라』 남북공동사진전(6.14-6.20, 평양), (9.22-10.5, 서울) ○ 아테네올림픽 북측방송중계지원(8.13-9.1, 해외) ○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 남북공동전시회(9.10-9.12, 금강산) |
| <p>2005</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개성 및 개성공단 취재 보도(2.7-2.11, 개성) ○ 6.15통일대축전 평양개최(6.14-17, 평양) ○ 가극 ‘금강’ 평양공연(6.14-6.17, 평양) ○ 남북대학생 상봉모임 개최(5.22-24/7.16-18, 금강산) ○ 2005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위성중계지원(7.31-8.7) ○ 2005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평양오픈대회 개최(8.26-8.30, 평양) ○ 8.15민족대축전 개최(8.14-17, 서울) ○ 조용필 평양공연(8.12-8.18, 평양) ○ 민주노동당 대표단 방문(8.23-27, 평양) ○ 제2회 남북방송인토론회 개최 및 방송중계차 지원(9.3-9.6, 금강산) ○ 민족오페라 <아!고구려 고구려-광개토태왕> 공연(9.7, 평양) ○ 남북여성통일대회 개최(9.10-14, 평양) ○ 코리아 남북체육학술대회 공동개최(10.1, 북경) ○ 오마이뉴스 평양마라톤대회 개최(11.24, 평양) ○ 광복60주년 기념 남북공동국제학술회의 개최(10.22-10.25, 중국 장춘) ○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대표자회의(12.9-11, 심양) ○ 개성의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남북공동학술회의(11.18-11.21, 개성) |
| <p>2006</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 통일행사(*05.12.30~*06.11, 금강산) ○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2.20-24, 평양) ○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대회(3.2-5, 춘천) ○ 남북여성대표자회의(3.9-11, 금강산) ○ 평양 안학궁터 남북공동 발굴조사(4.8-4.19, 평양) ○ 5.1절 기념 평양행사(4.30-5.3, 평양) ○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5.10-11, 금강산) ○ 6.15민족통일대축전(6.14-17, 광주) ○ 2006 남북공동나무심기행사(4.21, 개성) ○ 세계문화유산등재 고구려고분군 실태조사(4.19-5.2, 평양) ○ 2006 남북공동나무심기행사(4.21, 개성) ○ 금강간 윤이상음악회(4.29, 금강산) ○ 북한주민의 건강증진방안을 위한 남북공동학술회의(5.21-24, 중국 심양) ○ 남북공동사진전(6.6-진행중) ○ 안중근의사 유해매장 추정위치 남북공동조사(6.7-11, 중국 대련) ○ 2006 독일월드컵 대북 위성중계(6.12-7.20) |

자료 : 국회, 『2006 국감자료』, 2006. 12. 8.

3) 금강산관광 사업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사업인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을 이끌어 온 평화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강

산관광이 대북 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77.5%가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 특히 1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관계 진전사항을 직접 체험하며, 북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여 남북 화해·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분단과 대결을 넘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첫 번째 남북경협사업으로, 개성공단이 한반도 서해의 발전축을 담당하고 있다면 동해의 발전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하며, 남북경제의 균형발전과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실험장으로 평가된다.

금강산관광사업에는 약 40여개 기업과 2,000명이 넘는 남북한 근로자 및 재외동포가 근무하고 있다. 향후 통천, 원산 등에 이르는 금강산특구 개발종합계획이 확정되면 국내외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강산관광특구는 2020년까지 10개에 이르는 관광지구가 개발될 예정이며, 휴양·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국제관광명소’로 변신함으로써 1일 관광객 1만명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4) 철도·도로 연결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은 한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사업의 상징성을 띠고 있으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한반도의 동서 물류축을 남북 물류축으로 연결시키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 된다. 철도 및 도로 연결은 물류비 절감이라는 직접 효과 외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육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한반도내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경의선 철도운행이 정례화 되고 중장기적으로 대륙철도망 아시아안 하이웨이와 연계할 경우 한국과 일본을 출발하는 화물이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을 통과하여 유럽으로 이동할 수 있어 한국과 일본에게는 물류비 절감 효과, 그리고 북한에게는 화물통과료 수입을 가져온다.

철도·도로 연결은 대륙과 해양의 중계이익을 획득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한반도 종합교통망 구축에 기여하게 된다. 즉, TSR, TCR 등 대륙철도와 연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국제간 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5) 개성공단 사업

북한의 대표적 군사요충지로 알려져 있는 개성지역이 평화적 산업지대로 변모하고 있다. 개성공단사

2) 통일부 자료

업은 남북한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경제협력사업으로,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된 한반도 냉전질서를 녹이는 평화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내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하여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개성공단이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수준은 중국의 1/2 수준, 한국의 8% 수준에 불과하며, 주당 법정근로시간도 다소 높은 편이다. 공단 분양가 역시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1/3 수준이어서 새로운 투자처로 매력을 끌 수 있는 곳이다. 향후 개성공단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현재의 투자요인들이 다소 변동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 동남아 등 저임금국으로의 해외이전 대상 국가들과 비교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표 6> 개성·중국·한국 공단 기업여건 비교

| 구분 | 단위 | 개성(A) | 중국(B) | 한국(C) | 중국대비(A/B) | 한국대비(A/C) |
|----------|----|---------|---------|---------|-----------|-----------|
| 월최저임금 | 달러 | 50 | 99.28 | 642 | 0.50 | 0.08 |
| 주당법정근로시간 | 시간 | 48 | 40 | 44 | 1.2 | 1.1 |
| 기업소득세 | % | 10~14 | 15 | 23~28 | - | - |
| 평당분양가 | 원 | 149,000 | 480,000 | 407,550 | 0.31 | 0.37 |

자료 : 2006. 2 KOTRA 자료(중국은 청도경제기술개발구 기준) 및 통일부 자료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을 실현할 수 있는 동시에 한반도의 새로운 생산기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수출전략의 전초기지로서 기능을 확장하는 한편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남북한 양측의 협력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과 개성,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잇는 삼각형(triangle)의 ‘글로벌 비즈니스 베이스’(Global Business Base, GBB)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미래비전을 제안해 볼 수 있다.

6) 남북한 경협합의

남북한 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정비는 곧 서비스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협 관련 법제통합의 실험장으로 시장친화적 법제도와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있는 투자여건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합의서 체결 및 사업준칙 제정·지원에 노력하고 있다.³⁾

3)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등 13개 합의서 시행,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15개 하위규정을 남북이 협의하여 제정·시행, 그리고 남한 법령을 토대로 회계검증준칙 등 31개 사업준칙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추가 13개 준칙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

〈표 7〉 13개 경협합의서 현황

| 구분 | 경협합의서 |
|----------------------------|---|
| 2003.6.30 국회동의 합의서 (4건) |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 2004.9.23 국회동의 합의서 (5건) |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 2004.12.9 국회동의 합의서 (4건) |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남북해운합의서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자료 :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해설자료, 2006. 12. 8.

남북한은 상호합의로 투자보장합의서 등 13개 분야의 경제협력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일은 기업의 투자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안정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투자리스크 부담으로 인하여 발전적 협력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한국은 이미 정치적 이슈를 핑계로 한 경제협력 중단(그것도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의 경험을 몇 차례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북측 상대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등을 담당하고 있고, 상사분쟁시 쟁송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북투자기업이 책임질 수 없는 손실발생에 대비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손실 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2006년 6월 30일 시행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뒷받침이 가능해졌다.

2. 남북한 서비스 협력의 과제

1) 서비스 인프라 미흡

북한은 지금까지 장막에 가려진 상태로 운영되는 국가시스템으로 인하여 활용가능한 정책자료 내지 통계정보가 크게 부족하다. 이 때문에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대응 전략 또는 정책 수립이 곤란하게 되

며, 서비스 부문의 거버넌스 역시 확인하기 곤란한 바, 상호 협력을 위한 컨택 포인트를 찾기 어렵다. 또한 철도의 노후화 및 저속운행 사정도 ‘길 마케팅’을 통한 서비스 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하여 서비스 인프라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2) 북한 서비스시장 발굴 곤란

경제력 격차에 의하여 북한에 배고픔이 남아 있는 한 서비스상품에 대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명확히 얻을 수 없다는 점은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즉, 한국은 이미 경제 욕구(needs)에 있어서 양적 충족의 단계를 지나 질적 충족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아직 양적 충족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격심한 글로벌 경쟁의 현장에서 수행되는 미래를 내다보는 무역전략의 하나는 일류의 유망서비스상품을 발굴하는 일임에도 북한에서는 현실적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는 만큼 서비스시장 발굴이 어려울 것이다. 서비스 부문의 틈새시장을 찾는 일 역시 용이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3) 시장원리 적용 곤란

남북한 상호협력의 전제로써 직면하는 문제의 하나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북한의 태도이다. 북한은 자본주의 내지 시장원리 마인드가 없는 편이므로 협력사업의 수익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논의 자체를 검토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단 사업진척이 이루어진다면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경제마인드가 살아날 것이므로 서비스 부문의 상호협력도 용이해질 수 있다.

관광서비스의 경우 남북한 협력의 관점은 청정의 자연자원을 근거리에서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계절 특성을 반영한 자원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운수서비스의 경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통하는 관문역할의 도로 및 철도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정부 이후 남북한 상호간에 현실화된 경제협력 분야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사실상 전부이다. 남북교역은 경협사업의 범주에 넣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연결은 경협사업이라기 보다는 경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해당하는 중간투입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어느 사업이든 남북한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고 실질적인 경협 분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 경협의 기본은 시장원리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정치적 이념과 목적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한반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시장원리가 배제된 경협은 향후 사업 실패의 경우 책임귀속에 대한 논란이 정부 또는 유관기관에게 돌아갈 수 있다.

4) 북한리스크의 제거

남북한 경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현실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동안 남북관계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절차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규율되어 왔지만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현안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율하지는 못하였다. 가령 남북회담 대표의 임명, 남북합의서의 체결·공포,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었고, 특히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남북간 경협 합의서 등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이르렀다.

이 법은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간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로써 대한민국 헌법(제4조)이 규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⁴⁾ 이 법에서는 남북관계를 '특수관계'와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다.⁵⁾ 이와 같은 법·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남북한 경협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북한리스크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추진되거나 실패할 우려가 있다.

북한은 이미 정치군사적 부문의 국가위험(political risk)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투자 및 경제활동에 관련된 리스크인 몰수위험, 계약불이행 위험, 환전위험, 송금위험 등과 같은 상업적 위험(commercial risk) 역시 매우 높다. 경제측면의 북한리스크 전체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핵위험 위험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북한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본합의서와 더불어 부문별 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준비해두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IV. 한반도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1. 협력의 비전 구상

1) 서비스수출 프레임

남북한 경제협력은 '한반도 드림'(Korean Dream)을 구체화하는 비전을 골격으로 삼아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금까지 코리안 드림의 의미가 한반도에 숨어 있는 환상을 찾아 나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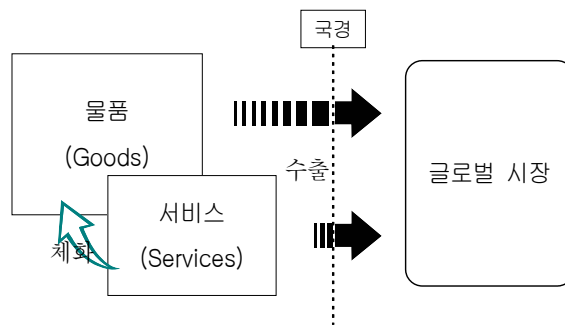
4)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라면 이 법은 남북한 간의 기본적 관계와 당국차원의 대북협상, 합의 등에 대해 규율한 법으로서 실체법적 성격이 강하다.

5) '특수관계'는 현 시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의 남북관계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정치적 실체성을 인정하되 헌법상 국가간의 관계로 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 내국관계로도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발전적·동태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 거래의 성격을 국내법적으로 '내부거래'로 규정함으로써 대외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내부거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1994.12.16 제정)에서도 규정한 바 있으며,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

저임금국 노동자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북한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반도 서비스산업의 기운찬 모습’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경험은 북한리스크 감소, 상호간 경제적 이익 제고, 북한의 경제난 해소 및 개혁·개방 유도,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⁶⁾ 그러나 미래의 한반도 경험은 서비스 부문의 상호협력 을 통한 발전모델을 채택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거듭나면서 한반도 미래비전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거래모델은 본질적으로 유형상품(물품)에 체화되어나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서비스수출 역시 물품수출에 체화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독자적인 서비스상품으로 국가간에 수출된다. 서비스 상품이 체화되어 수출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수출되는 경우의 마케팅 전략 및 거래 프로세스는 차별 적일 수 있으므로, 남북한 서비스 협력에서 고려해 두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글로벌 시장을 지향한 서비스상품 개발은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림 3] 서비스수출 프레임



2) 브릿지 전략의 활용

경제발전 단계를 감안할 때 북방 관문을 통과하여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길은 서비스 부문의 발전이 비교적 낮은 단계의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서비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한반도의 원격지점에 있으므로 어차피 중간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서비스 부문의 협력을 위한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부터 한반도 경험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었던 3통, 즉 사람의 통행, 물자교류인 통상, 그리고 통신에 대한 파격적인 물꼬를 터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관광서비스의 경우 금강산, 개성, 평양,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특정 구역 제한적 서비스상품으로는 글로벌 고객으로부터는 매력을 끌 수 없다. 관광서비스상품 발굴이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것 역시 미래비전을 담을 수 없다. 북한이 선택할 사안이지만 점진적 관광서비스 개방정책을 제안하기

6) 이영훈,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2006. 12, p. 4.

보다는 광속변화의 시대임을 감안하여 파격적으로 통행로를 열고 또한 글로벌 비전이 담긴 서비스상품을 제안하여 한반도를 동남아시아와 대륙을 연결하는 브릿지(bridge) 내지 게이트웨이(gateway) 전략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쟁상황을 감안한다면 이것만으로는 서비스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그 대안으로 한류(Han-style Brand)를 체화하고 북한의 문화예술 자원을 결집하는 '서비스 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서비스 거래의 준비

서비스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 등 한반도 경제협력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현실을 볼 때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금융서비스의 경우 '신용'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가장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일 수 있다.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서비스 인프라 이외에 은행간 코레스 계약 체결, 길(철도 및 도로) 연결의 통행 인프라, 불편 없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일은 비즈니스 활동의 전제조건들이다.

남북한은 한글을 사용하는 민족이므로 커뮤니케이션 장벽은 비교적 쉽게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도 필요하므로, 분쟁해결을 위한 상사중재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완비해 두어야 한다. 북한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투자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투자 과정에서는 사소한 분쟁이 감정적 대립 갈등으로 비화하여 그 파장이 거세질 수 있으므로 상사분쟁 해결 장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곧 서비스 인프라를 준비하는 일이다.

4) 북한 노동력 활용

개성공단 진출로 북한 인력 활용이 용이해졌다는 점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후속 조치들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성공단 진출에서 북한 노동자 채용, 필요한 경우 한국 및 해외동포, 외국인 등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개성공단 진출로 소중한 경험 인프라를 구축한 셈이다.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 50달러 수준이며, 임금인상폭을 매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의 노동력은 언어장벽이 없고 비교적 양질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소요되는 노동력의 부족분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8조에 의하여 북측이 그 조달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력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남측 약 3,100명과 북측 약 100,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쉽기는 하지만 남북한 경험에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투입요소는 어느 부문이든 저렴한 노동력과 부동산 거품이 스며들지 않은 토지가 유일한 대안일 것이며, 투입요소가 많지 않다는 북측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험의 당사자로서 북한에게 언제나 무임승차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력 이외의 투입요소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노동력을 이용하여 창출되는 제2의 자원인 서비스상품을 발굴해내는 일일 것이며, 문화예술자원, 관광자원, 정보자원 등이 활용가능한 투입요소가 될 것이다.

5) 서비스 이벤트 발생 확대

서비스산업 발전의 전제 중 한 가지는 계속해서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서비스의 경제적 정의 중 하나는 ‘편익 내지 활동’(benefits or activities)이므로 사람들의 활동에 관련된 이벤트를 발생 시킴으로써 서비스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으며, 이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출상품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중고교 또는 대학생의 수학여행 코스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관광서비스를 수출상품화 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부문의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의 이동을 촉진시키게 되며, 사람에의 의존 정도가 높은 서비스 부문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 남북한 서비스 협력을 위하여 계절별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가령 동계 스포츠 이벤트, 하계 청량지역을 활용한 휴양지 이벤트, 가을 단풍 벨트 등을 구상할 수 있다. 단풍벨트를 남북한 간에 연결하게 되면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한반도 전역에 걸쳐 단풍관광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6) 서비스결합상품화 수출전략

남북간 서비스 부문의 협력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여타 국가에 대한 기존의 서비스수출 내지 협력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협력모델을 구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한반도라는 동일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고 한민족 공동체라는 특수성을 비즈니스 협력의 전제로 안고 있다.

서비스 협력을 통한 발전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강점을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지식서비스, 운수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 전반에 대해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지만 관광서비스 부문에서 자원 그 자체가 부족하므로 이를 북한이 보완해주는 기능으로 서비스상품을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대륙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운수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길’(도로 및 철도의 육로와 해상로, 항공로 모두를 지칭)을 활용한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한반도 인구의 운송 모드별 물류비용을 비교하면 육로 수송의 경쟁력이 높다. 운수서비스 상품 발굴을 통한 한반도 서비스 협력 비전을 구체화할 경우 일본까지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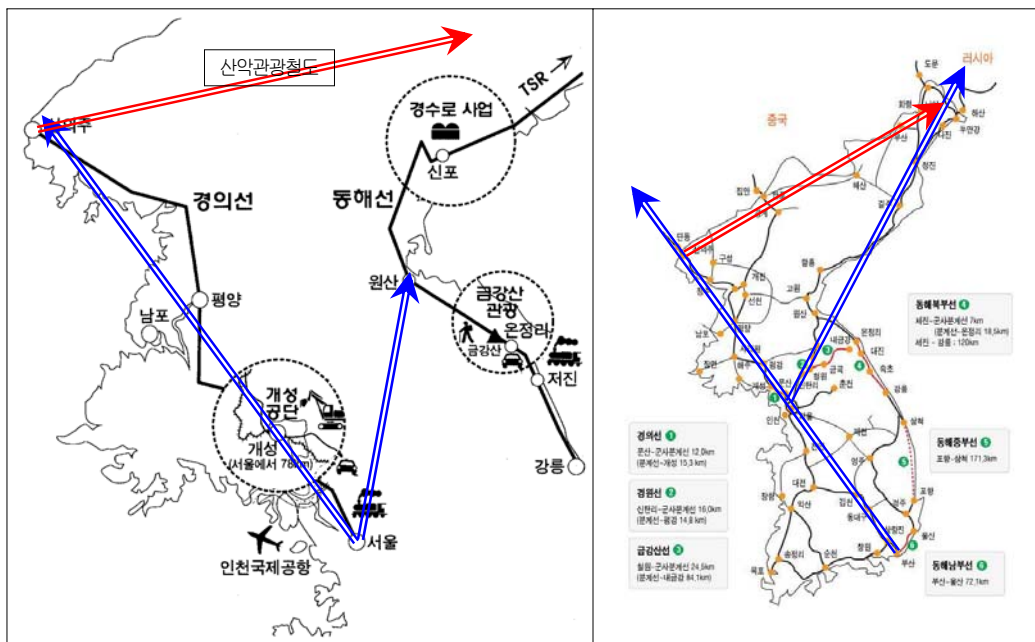
2. 부문별 전략

1) 운수서비스 협력

한반도 서비스산업 발전의 전제는 역시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와 도로는 오프라인 관점이나 물류흐름의 시각에서는 세계로 향하는 관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온라인 관점이나 서비스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결과가 된다. 육로와 해상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되, ‘길 마케팅’을 적극 활성화시켜 한반도 서비스 협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사람, 화물,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대륙으로 통하는 ‘길’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반면 북한은 ‘길’을 가지고 있으나 화물, 정보 및 지식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한 운수서비스 분야는 ‘길 마케팅’을 통하여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창(window)이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gateway)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길 마케팅’ 이용 방안



길 마케팅은 미래의 서비스산업 발전 및 협력을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및 로드맵 준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반도를 종단하는 길은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서비스산업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수

행한다. 서비스 부문은 본래 복잡다기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러한 길 마케팅은 남북한 운수서비스 부문의 협력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며, 로드맵이 마련되면 남북한이 함께 서비스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등 한반도 서비스 비전 로드쇼를 활짝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현 상태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횡단하는 철도운송로의 동쪽 기점은 한반도이다. 도시별로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 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출발점을 과감하게 일본에게 양보하는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남북한과 일본, 중국 및 러시아 등 철도연결에는 철도표준과 서비스표준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노후시설교체, 첨단지능화된 철도시스템 구축 등 글로벌 철도시대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림 4]의 길 마케팅 구상은 철도와 도로를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문화관광서비스협력

금강산관광사업이 성공하려면 현재 추진중인 칠보산, 묘향산, 백두산 등으로 확장되어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평안북도 신의주 부근을 출발점으로 하고 함경북도 두만강 유역으로 연결되는 고원지대를 청정자연관광특구에 해당하는 관광벨트를 개발하며 이를 관통하는 산악관광열차를 개설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 철도는 미래를 내다보는 첨단 지능형 교통망으로 설계하되, 알프스 산악철도 또는 티벳 칭짱 철도에 버금가는 관광 목적의 철도로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건설기술력을 감안할 때 철도 건설 시공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재원 역시 북한 경제난과 실업 해결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 발주를 대안으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

3) 교육서비스협력

교육서비스 협력은 북한의 개방을 앞당기는 데에 직접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동시에 지식자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2006년부터 교육혁명을 강조하여 시험방식, 교육내용, 교수방식 등 교육 전반에 대하여 ‘생각하는 교육’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고 과학과 기술교육의 저변을 넓혀 경제성장과 교육을 연계시키고 있다.⁷⁾

북한의 대학생 수는 2005년 현재 53만명 수준으로 한국의 대학생 수 302만명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인구 1만명당 대학생 수를 보더라도 한국의 627명에 비해 훨씬 적은 231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 청년인력 양성과 재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재(秀才) 교육기관인 제1고등중학교 확충,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IT 관련 단과대학 설립, 교육성에 프로그램 교육지도국과 프로그램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소프트

7) 『연합뉴스』, 2006. 12. 15.

웨어 분야 IT 산업의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다.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서 IT 분야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우수한 인력과 남한의 IT 기반 및 상업화 능력이 잘 융합될 가능성이 다른 분야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8〉 인구 1만명당 대학생 수(명)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한국 ¹⁾ | 622.3 | 634.4 | 633.1 | 631.6 | 627.4 |
| 북한 ²⁾ | 139.3 | 138.6 | 235.3 | 233.4 | 231.2 |
| 남/북(배) | 4.47 | 4.58 | 2.69 | 2.71 | 2.71 |

주 1)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을 포함. 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은 제외

2) 전문대학, 농장대학, 공장대학, 어장대학 포함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http : //kosis.nso.go.kr](http://kosis.nso.go.kr))

남북한 교육서비스 협력은 아웃바운드 전략과 인바운드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교육서비스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국내 공급능력이 매우 성숙되어 있고 동시에 IT 기반 역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 교육서비스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성공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이 경우에도 북한 내부의 교육서비스시장을 타깃으로 해서는 안 되며,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교육서비스 아웃바운드 수출전략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 각국의 유학생들을 불러들이는 인바운드 수출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4) 한민족 기예 활용

우리 민족은 천부적인 지적자산을 가진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편이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기예(技藝)가 뛰어난 민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적노동에 의하여 창출되는 풍부한 서비스상품을 가진 민족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확연해진 지식사회에서는 우리 민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내지 예능적 소질을 한껏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최근 20여년의 짧은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한 디지털 강국의 성과가 민족적 특성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 남북협력의 방향을 서비스 기반에서 출발할 경우 우리 민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예능적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여 서비스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세계로 수출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에 분포되어 있는 예술단 공연 이벤트와 관련 자원을 서비스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8) 이춘근, “2006, 지금 북한에선 : 과학기술편”, 『주간조선』, 1890호, 2006. 02. 06.

V. 결론 및 제언

이제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을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새롭게 모색할 때가 되었다. 즉, 한반도 미래비전을 서비스 부문의 협력과 발전 전략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서비스 부문의 협력은 남북한 경협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며, 서비스 기반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경협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반도 서비스 비전을 구체화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실천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서비스 부문에 대한 대북 투자 역시 군사용 목적으로의 전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첨단기술 등 몇몇 부문을 제외하면 물품 중심의 경우보다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확률은 낮을 것이지만, 기존의 금강산 관광 방식으로 북한에 제공되는 금전적 급부는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대한 개선은 시장의 참여를 통한 영업이익으로 북한이 경협의 대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예방적 조치로써 검토해 두어야 한다.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는 국방재원을 경제부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투자여력을 늘려 경협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 부문에 걸친 사전 정지작업을 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물자통제시스템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한 북한에 대하여 통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방지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보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하여 통신기반을 제공하게 되면 북한의 개방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동질성을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서비스 협력사업의 핵심분야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금까지의 기초생활 지원에 치중한 대북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쌀지원, 전력지원, 비료지원 등 기초생활에 편중된 지원은 지원기간의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 “우선 당장 급한 불”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지원이고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나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대북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넷째, 현재 제조부문 위주의 경협 기초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제조공장이 돌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서비스상품의 거래가 수반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남북한 서비스 부문의 협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 신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한반도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자원부족 및 시장협소)를 극복하는 부단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한국의 관광자원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북한의 기능을 살려 관광서비스 협력의 폭을 넓히고 그 대상을 외국관광객 유인 모델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북한 서비스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한반도 지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아직도 북한을 이념적으로 멀리 있는 나라로 볼 것이 아니라 경협 파트너이자 이웃이자 하나의 나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남북한 지도를 한 면에 그려야 할 것이다.

현 시대적 배경에서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의 힘은 가장 강력하며, 어떤 나라든 이들 두 가지 트렌드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디지털 및 글로벌 트렌드가 창출하는 힘은 어느 나라든 예외 없이 닫힌 문을 열게 하고 폐쇄된 공간의 빗장을 풀게 하며, 그것도 부족하여 경쟁의 마당으로 이끌어내는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남북한 서비스 부문의 협력에 대하여 학술적 연구지원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남북한 경험과 관련하여 많은 부문에서 분석·검토되고 있지만 서비스 협력을 검토하고 이를 한반도 미래비전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아직까지 시도되지 못하였다. 언젠가는 WTO/DDA 서비스 협상과 국가간 내지 지역간 FTA 협상을 위하여 남북한 대표가 동반 참석할 기회가 도래할 것이다. 체계적인 대응전략으로 한반도 서비스 비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한 협력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정치·이념 우선의 사고가 고착화되어 있는 북한의 사회생활 양상을 경제마인드와 비즈니스마인드로 대체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면 의외로 반대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지향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부연해 둔다. 지금까지의 편의주의적 남북한 관계로는 더 이상 글로벌 무대에 어필할 수 없다. 남북한 경험과 한반도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에 희생이 없을 수는 없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뿐더러 대북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국민이 인정하고 양해와 배려, 그리고 힘찬 성원을 보내는 것이 글로벌 경쟁을 극복하는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제협력 패러다임으로는 민족문제 또는 국내문제로 인식되어 세계무대에서 자칫 오해를 야기시키거나 배척당할 수 있음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관문(gateway)임이 분명하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다면 디지털 인터페이스(digital interface)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연결 창문(window)이기도 하다. 이 시대는 수많은 변화요인들이 활성작용을 하면서 어떤 나라든 빗장을 걸어두고 있도록 더 이상 방치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의 자발적인 의도이거나 타의에 의한 거부할 수 없는 큰 힘으로 인하여 창문을 활짝 열게 되었을 때 단일민족의 한 핏줄임을 자임해 온 한국으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답은 바로 서비스 각 부문의 융화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며, 현행 남북한 경제협력의 목표점이 단일 문화로의 복귀와 세계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것임을 제언하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한다.

참 고 문 헌

- 김연규,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철도 연계방안”, 교통개발연구원, 2004. 11.
- 김영운,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2006-01, 2006.
- _____, “북한개발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 증진방안”, 산업은행 창립50주년 기념심포지엄, 2004. 3. 31.
- 문성민,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11.
- 엄광열, “남북한 육상물류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의 통상과제와 전략”,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2006. 12.
- 이영훈,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2006. 12.
- 이춘근, “2006, 지금 북한에선 : 과학기술편”, 『주간조선』, 1890호, 2006. 02. 06.
-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통일연구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2005-05, 2005. 9.
- 국회, 2006 국감자료, 2006. 12. 8.
- 통일부, “남북협력비용 어떻게 볼 것인가?”, 2005. 12.
- _____,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해설자료』, 2005. 12.
- _____, “6.15 5주년 남북관계 추진현황 및 평가”, 2005. 12.
- _____, 『한반도 통일과정의 이해』, 2005. 11.
- _____, “참여정부 3년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 2006. 2. 23.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2006. 4.
- 한국은행, 통계청 등 통계지표